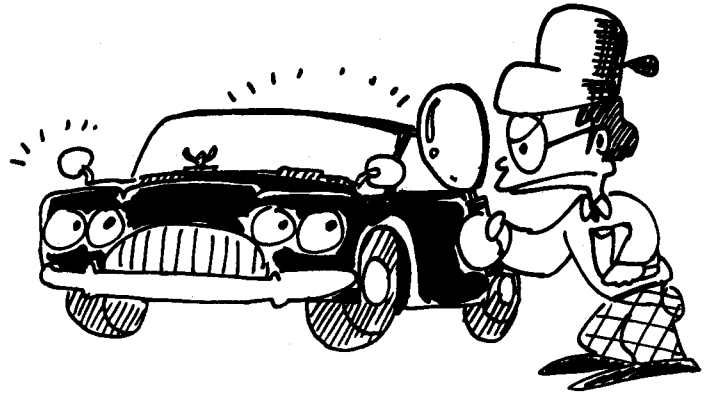


# 사고에 우연없고 예고없는 사고 없다



## 교통법규 위반이 잦으면 사고위험이 크다

**교** 통사고로 급서한 어떤 사람이  
이 염라대왕에게 격렬하게 항  
의를 했다고 한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나를 데려 오면 남아 있는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말  
이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껄껄 웃  
으면서 당신은 내가 갑자기 당신을  
데려 온 것으로 착각을 하는 모양  
인데 적어도 나는 사람을 데려 올  
때는 적어도 수십번은 사자를 보내  
서 경고를 하고 데려 온다고 하더  
라는 것이다. 그러자 죽은 사람은  
그런데 왜 나에게만 수십번은 그만  
두고 한번도 경고를 한 적이 없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자, 염라대왕은  
당신이 나의 경고를 무시해서 그렇  
지 나는 적어도 수십번은 경고했다  
고 하면서 당신 생전에 교통 경찰  
에게 몇번 단속되었는가라고 물었  
다. 교통법규 단속건수가 30번이라  
고 대답하자 접촉사고는 몇번이었  
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3번이라고  
대답하자 염라대왕은 당신이 기억

하는 바와 같이 바로 그 교통경찰  
관이 나의 사자다. 그를 보내서 당  
신에게 30번 이상 경고를 했다. 그  
래도 않되어서 나는 접촉사고 운전  
사라는 사자를 다시 당신에게 보내  
서 3번이상 경고를 했다. 그래도  
당신이 경고를 무시하기 때문에 데  
려 온 것이다. 우스개 소리같은 이  
야기지만 이 세상에, 사고에 우연  
없고 예고없는 사고없다는 것을 가  
르치는 우화로 생각한다.

참고로 92년, 93년중 우리나라  
의 교통 법규 위반 단속건수를 보  
면 250만, 350만건에 이른다. 이  
기간중 부상자를 보면 34만명, 그  
리고 사망자는 만이천명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 통계를 보면 염라대  
왕의 경고가 과장된 것만은 아니라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건의  
교통 벌칙 건수가 있으면 1번의 부  
상사고가 있고, 30번의 부상 사고  
가 있으면 1명의 사망사고가 있다  
는 통계이다. 이러한 안전사고의  
법칙을 하hil라히의 법칙이라고 한  
다. 사고가 날뻔한 것이 300번이라  
면 30번의 경사고가 있고 30번의  
경사고가 있으면 1번의 대형사고가

터진다는 것이 그 요지다. 50만건  
의 사고 위험에서 48,334건의 소형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고 그 중에서  
대형 사고로 발전된 것이 1,666건  
이더라는 산업 재해 분석의 결과  
다. 이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사고  
위험이 있으면 대형 사고를 예상하  
여야 하며, 이러한 대형 사고를 예  
방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위험요소  
라도 제거해서 대형 사고를 예방하  
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에서의 사  
고예방도 조기 진단에 의한 부실요  
인의 조기발견이 최우선 과제이다.  
부실요인이 커진 이후에 훌륭한 컨  
설턴트의 조언을 받기 보다는 자기  
진단에 의해서 조기에 부실요인을  
발견해서 제거함으로써 가장 값싸  
게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기업들은 기업의 병을  
키워서 치료하기 때문에 큰 댓가를  
치루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기  
업의 부실요인의 조기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경영진단의 일상화 또는  
자기진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 경영진단의 일상화가 필요하다.

사고에는 우연이 없고 또한 예고 없는 사고는 없다. 다만, 우리 인간이 감지하지 못했거나 지나쳐 버렸기 때문이지, 모든 사고에는 사전 증후군이 있기 마련이다. 동해안에 가면 어부들은 민집게 벌레가 집에 있을 때는 배를 띄우지 않는 습관이 있다. 그것은 민집게 벌레가 집으로 들어 오면 꼭 태풍이 오기 때문이다. 적어도 태풍은 민집게 벌레에게는 예고를 하고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어려서 모든 집에는 집을 지키는 뱀이 있는데, 이 뱀이 나가면 집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것은 뱀이 나가면 집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집이 무너질 것을 뱀이 진단하고 나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기서 민집게 벌레나 뱀같은 미물도 진단이 가능한데 우리와 같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러한 진단이 불가능한 것은 우리가 예고된 경고나 지표를 무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 경영의 사고 또는 부실도 끊임없이 예고를 통해서 경영자에게 전달된다. 그런데도 기업이 사고나 부도가 발생하는 것은 경영자가 이러한 예고를 무시하거나 전문 컨설턴트의 조언을 기다리다가, 문제가 심각해진 이후에 문제 해결에 접근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는 일상관리의 끊임없는 관찰을 통해서 자기진단을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값비싼 댓가를 치르지 않게할 엄숙한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필자가 지금까지 20여년간의 기업 지도를 통해서 얻어낸 기업 경영의 자가 진단의 10가지 노하우를 소개한다.

## 자가 진단의 노하우 10가지

### (1) 부서장의 부재중에 부서를 진단한다.

관리자의 능력을 부재중에 나타난다. 불량한 관리자는 자기가 없으며 업무가 마비되게 만들지만, 훌륭한 관리자는 부재중에도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한다. 사장이 며칠이나 부재중이라도 업무가 차질이 없을 수 있는가가 사장의 능력을 결정한다.

### (2) 쓰레기장에서 진단을 시작한다.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대소변에서 예측하듯 기업의 진단은 쓰레기장에서 시작한다. 대소변에 영양가가 배출되면 양질의 재료가 나가면 양질의 재료가 나가면 양되기 때문이다.

### (3) 재고로써 판단한다.

의사가 혈당량으로서 건강을 체크하듯 부서의 재고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체크한다. 여기서 재고는 하드웨어적재고 뿐 아니라 업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적 재고도 포함한다.

### (4) 결재소요 기간으로 평가한다.

지금은 시간차 경영의 시대다. 결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써 부서의 문제점을 체크한다.

### (5) 고객에게 묻는다.

기업경영의 최우선 과제는 고객만족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업부의 진단은 고객을 통해서, 생산부는 영업부들 통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다.

### (6) 말단에게서 듣는다.

간부 사원의 진단은 고객 여순의 원칙에 의해서 말단을 통해서 진단한다. 또한 신입사원의 신선한 제안에 유의한다.

### (7) 규정의 개정 빈도를 확인한다.

지켜 지지 않은 규정이 제정된 이후에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면 규정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 (8) 완벽한 관리분야에 유의한다.

인간이라면 절대적으로 완벽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완벽하다면 조작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 (9) 위험성이 있는 곳에 사고있다.

사소한 사고라도 한두번 발발한다면 지나치지 말고 대형 사고의 위험성을 예감한다.

### (10) 접점에 유의한다.

전기 기구도 접점에서 고장이 나듯이 부서와 부서의 업무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경찰서에서 서로 관할을 미루어 사고가 나듯 기업의 부서간의 접점에서 사고의 빈도가 크다.

■ 글/윤덕균 교수(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